

1 동정

- ▶ **고수곤** 대한인쇄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3월 25일 인쇄정보센터 강당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 ▶ **한용근** 인쇄문화인뉴스회 회장은 올해 낚시대회를 지난 4월 18일 경기도 연천군 백학저수지에서 개최했다. 이날 낚시대회는 서울인쇄정보조합(이사장 조정석)이 후원하고 정도케미칼 선일상사가 협찬했다.
- ▶ **오규남** 한국인쇄학회 회장은 오는 5월 22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인쇄정보센터 강당에서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를 연다.

2 화촉

- ▶ **김미숙** 위너스기획 대표의 장남 상일 군이 지난 4월 4일 한신인테밸리에서 화촉을 밝혔다.
- ▶ **박종호** 세종피앤피 사장의 아들 건상 군이 지난 4월 25일 마포 M팰리스웨딩홀에서 화촉을 밝혔다.
- ▶ **김정전** 대화특수인쇄공사 사장의 차남 영모 군이 지난 4월 10일 노블레스 웨딩컨벤션에서 화촉을 밝혔다.
- ▶ **박영범** 범문브래스엘디 사장의 차녀 수진 양이 지난 3월 21일 한국의 집에서 화촉을 밝혔다.

3 부음

- ▶ **신상순** 천우정보(주) 대표이사의 부친이 지난 3월 29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 ▶ **김광수** 호원문화 대표가 지난 3월 22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4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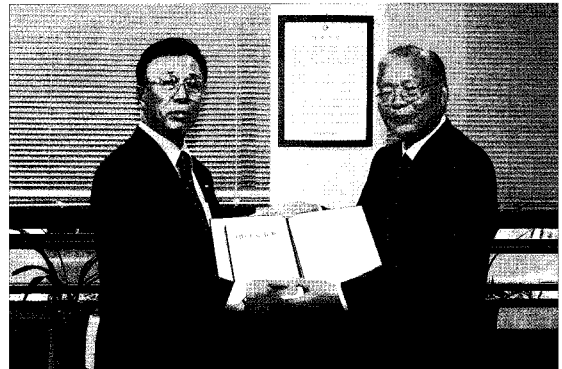
- ▶ **현대기획인쇄**(대표이사 이의찬)는 최근 상호를 (주)현대기획프린팅으로 변경했다.
- ▶ **삼일문화정보(주)**의 대표이사에 최근 이승박 씨가 취임했다.
- ▶ **우리기업(주)** 대표이사에 최근 김창호 씨가 취임했다.

:: 인쇄단체 · 기관뉴스

Association news

‘인쇄대사전’ 판권 인협에 기증

정해석 월간 인쇄문화 발행인은 지난 4월 15일 대한인쇄문화협회를 방문, 그동안 발행해 오던 인쇄대사전 판권을 인협에 기증했다. 정해석 발행인은 “월간 인쇄문화 발행권을 최근 기술정보에 넘겼지만 인쇄대사전은 인협에 기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기증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홍우동 회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인쇄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신 정해석 사장님의 큰 결단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인쇄중주국에 걸맞는 사전으로 증보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해석 발행인은 50년 이상을 외길 잡지인으로 살아 왔으며 1985년부터 월간 인쇄문화를 발행하며 우리나라 인쇄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와 함께 1987년부터 인쇄대사전 발간을 준비해 4년 후인 1991년 1쇄를, 2001년에 2쇄를 발간한 바 있다.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회장 김진배)는 지난 3월 25일 서울인쇄센터 7층 강당에서 200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진배 회장은 개회사에서 “인쇄업계는 인쇄 능력 확보와 인쇄 기술력 증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쇄 및 관련 산업인이 용기를 잃지 않고 굳은 의지로 인쇄중주국의 기상과 저변을 다시 한 번 발휘한다면 우리 인쇄업계의 미래는 무한히 밝을 것”이라면서 “지식경제부 등록 단체인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는 앞으로도 인쇄 및 관련 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 구축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더욱 투철한 사명감으로 인쇄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8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2008년도 잉여금 처분안,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심의로 진행됐고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 청주시, 직지문화특화거리 조성 본격화

청주시가 직지를 주제로 문화 명소화하려는 직지문화특화 거리 및 광장 공사가 본격 시행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청주고인쇄박물관(관장 안병무)이 오는 8월 준공을 목표로 직지문화특구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직지문화특화거리 및 광장 조성 공사에 착수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일원 4000m<sup>2</sup> 부지에 10억 2000만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직지문화 특화거리·광장에는 기존 담장을 철거한 뒤 금속활자 주조를 상징하는 쇠물 형상의 계류시설과 휴게시설을 조성한다. 야외무대, 직지 상징 조형물도 설치한다. 또 가로·보안등을 교체하고 대형벽화를 설치하는 등 고인쇄박물관 주변을 직지를 주제로 새롭게 정비한다.

## 동국대학교 RIS 사업단 제3회 워크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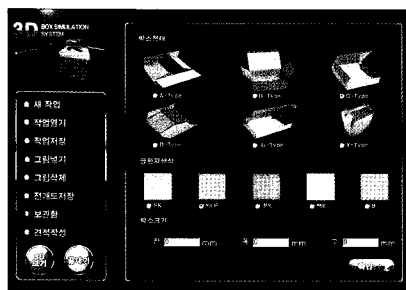


동국대학교 RIS사업단(단장 이의수 교수)은 지난 3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양평 대명리조트에서 '2009년도 동국대학교 RIS 사업단 제3회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은 동국대 산학협력단의 3차년도 세부사업 수행 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한 발표에 이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 지함조합, 포장상자 쇼핑몰 '박스웨이' 오픈

지함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정일)은 지난 1일 포장상자 쇼핑몰 박스웨이를 오픈했다. 박스웨이는 포장용 골판지박스를 제조하는 150여개 회원사가 생산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택배물량이 많은 온라인쇼핑몰과 식품, 유통, 공산품, 특수분야 등 전문가용 상자 등을 포함해 200종류에 달하는 상자를 판매하고 있다.

구매고객은 웹상에서 상자에 인쇄할 그림, 로고, 전화번호와 CI등을 미리 작업해 볼 수 있으며 3D로 앞뒤 전후좌우를 돌려 보면서 제품을 확인할 수도 있다. 컨설턴트와의 1대1 상담으로 최종적인 구매를 결정하게 된다. 가격은 온라인서점의 택배상자 크기가 장당 평균 300원 안팎이며 라면상자크기도 장당 1000원 정도로 저렴하다. 지함조합은 상자 수요가 많은 쇼핑몰업체들에게는 요즘 같은 불황기에 상자 값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박스웨이의 제품들이 품질과 기술,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_ www.kpbc.co.kr



## 5 이전

- ▶ **삼일기획**(대표 한태영)은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203번지로 이전했다.
- ▶ **금하기획**(대표이사 김형민)은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인현동2가 192-30으로 이전했다.
- ▶ **㈜디자인인트로**(대표이사 임학래)는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8-8로 이전했다.
- ▶ **㈜서울멀티넷**(대표이사 류병기)은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인현동1가 133-17로 이전했다.
- ▶ **삼영문화인쇄**(대표 박노한)는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을지로4가 300-2로 이전했다.
- ▶ **㈜프린트 삼영**(대표이사 박찬희)은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쌍림동 146-1로 이전했다.
- ▶ **과학문화사**(대표 유범식)는 최근 사업장을 서울시 중구 인현동1가 132-1로 이전했다.

## '직지야! 어디있니?' 홍보 만화 책자 발간

청주고인쇄박물관은 위대한 세계기록유산인 직지 찾기 및 직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직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용 만화책자 '직지야! 어디있니?' 2천권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칼라로 32쪽 분량에 가로 15.3cm×세로 21.5cm 크기로 앞면은 지구 전체 그림과 직지(하권), 뒷면은 청주10선 이미지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직지 제작과정, 직지의 우수성, 고인쇄박물관 특징, 직지찾기 PR 등으로 꾸며져 평소 일반인 및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힘든 직지와 고인쇄문화에 대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직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박물관 측은 400부를 중앙부처인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 시산하 전부서와 민원실은 물론 관내 초중학교 홍보용으로 배부하고, 오는 9월 3일부터 4일까지 청주 예술의전당 일원에서 펼쳐지는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에 내방한 어린이·학생 및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어 직지의 가치와 직지를 찾는 자료로 국내외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 인쇄 · 프리프레스 뉴스

Printing Prepress



**GMP, 내 고장 사랑운동 참여**

(주)GMP(대표이사 김양평)가 '내 고장 사랑운동'에 적극 나섰다. 지난 4월 1일 GMP의 김양평 회장과 임직원 348명은 파주시 문발산업공단에 위치한 GMP 본사 2층 대강당에서 내 고장사랑 운동 협약식을 갖고 '내 고장 사랑 카드' 가입신청서를 김명원 국민은행 교차지점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따라 GMP임직원이 사용한 카드 이용금액의 0.2%가 내 고장 사랑기금으로 적립되며, 전액을 파주시내 이웃돕기 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다. 김양평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GMP는 파주시에 뿌리내리고 이곳의 자양분을 먹으며 성장한 기업"이라며 "우리 고장 파주시를 위한 의미 있는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게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MP는 지역봉사 활동을 꾸준히 전개, 지난해에는 파주시내 장애인들과 불우 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쌀 300포대(6000kg)를 지원하기도 했다.

**경림코퍼레이션, 한국생활신문 창간**



(주)경림코퍼레이션(대표이사 리우식)은 지난 3월 27일 한국생활신문 창간 축하행사를 가졌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소재한 본사에서 진행된 축하행사에는 인쇄업계 관계자와 지인 등 많은 인사가 참석했다.

리우식 대표는 창간사를 통해 "경림코퍼레이션이 지난 79년 창립된 이래 30여년 동안 인쇄업계와 관련기업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며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30만 여명의 중국인들을 위한 상호간 교류의 장으로서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제 역할과 기대를 함께 모으는 소임을 감당하는 인쇄매체로 자리매김하여 조금이나마 받은 사랑을

보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림코퍼레이션은 현재 한국3M 및 캠브리지 사보 등 각종 기획 인쇄물을 제작하고 있으며 3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성진애드컴 조대경 차장 표창 수상**



(주)성진애드컴(대표이사 이정희) 영업접수팀 조대경 차장은 최근 한국스크린공업협회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조대경 차장은 빠르고 안정적인 고객주문 접수를 통해 고객만족서비스를 이끌어온 공로로 이번 표창을 수여받았다.

**GMG, 인쇄센터에 컬러매니지먼트시스템 기증**

서울인쇄센터(이사장 조정석)는 지난 4월 17일 독일 GMG사의 컬러매니지먼트 시스템 솔루션인 Color Proof Automa



ted 및 ColorServer 기증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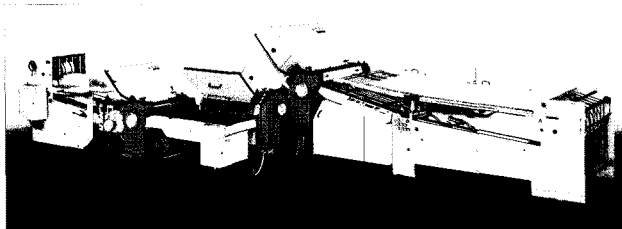
이번 소프트웨어 기증은 GMG사의 Henry Ng(아시아지역 영업 총괄이사)씨와 GNG 한국 총판인 Hunics사의 명노삼 대표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조정석 이사장은 감사장을 전달했다. 인쇄의 디지털화에 따라 컬러매니지먼트 시스템(CMS)은 인쇄의 품질과 생산성에 불가결한 중요한 기술적 트렌드이다. 특히 해외 인쇄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컬러 표준에 따른 교정지, 인쇄물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핵심 기술이다. 서울인쇄센터는 GMG사의 컬러매니지먼트 솔루션을 비롯한 X-rite사의 분광농도계 530, PlateScope, ProfileMaker, QuarkXPress Server 등 계측기기 및 첨단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교육과 업체의 현장 건설팅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 인쇄잉크, 2월 생산 마이너스 21%

인쇄잉크 생산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경제 산업성·화학공업 통계에 의한 2월 속보치 생산량이 2만7803톤으로, 전년동월대비 21% 감소했다. 작년 10월 이후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11월, 12월에는 10%대, 2009년 1월에는 동 15%의 부진을 나타냈다. 2월에는, 마이너스 폭이 마침내 20%대를 나타냈다. 인쇄 잉크는 내수형 산업인 인쇄 업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런 경기침체 상황에서 상업 인쇄를 시작으로 하는 수요 분야의 불안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 하이델베르크, 스탈폴더 TD94 1호기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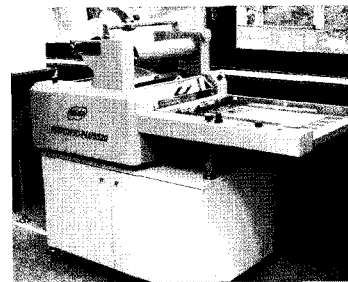
가톨릭 출판사(대표 김승철)는 한국하이델베르크(주)(대표이사 김범식)가 공급하는 초대형 스탈폴더 TD94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가톨릭 출판사는 TD94에 대해 기존에 개별적으로 다르게 접지를 한 후 재단 그리고 삽지 작업(8page)을 수작업 했던 것을 특수 옵션장치가 장착이 된 TD94에서 인라인으로 한 번에 생산을 함으로써 시간과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고 생산성을 2배로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스탈폴더 TD 94의 도입으로 가톨릭 출판사는 8페이지 완성된 접지물을 생산함에 있어 기존에 필요했던 몇 가지 공정을 줄일 뿐만 아니라 삽지 공정에서 필요한 인건비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스탈폴더 TD 94는 단순히 16페이지 접지뿐만 아니라 TD94 한대의 접지기로 각각 다른 내용물의 접지물(8page)을 두판걸이로 한번에 생산할 수 있는 특수 옵션 장치가 장착된 접지기이다. 연속 급지기인 라운드 휘더, 첫번째 스테이션에 발채 4개, 두번째 스테이션에 트윈 레이 어태치먼트라는 옵션장치가 설치되어 다른 내용의 접지물을 한 번에 두 판걸이하며 엷지 트리밍 작업을 통해서 완성된 형태로 간단한 책자 접지물을 생산할 수 있다.

### 하이델베르크 세일즈 워크샵 개최

한국하이델베르크(주)(대표이사 김범식)은 지난 4월 3일 서울에 위치한 인쇄정보센터 대강당에서 2009~2010회계년을 시작하는 세일즈 워크샵을 열었다. 하루 동안 진행된 이번 워크샵에서 김범식 대표는 불황을 극복하고 고객과 회사의 이익 모두를 창출할 수 있는 진정한 세일즈 담당의 모습을 제시했다. 이어 강사를 초빙해 세일즈의 원칙과 고객과의 성공적 관계를 형성하는 노하우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좀 더 효율적인 판매 활동을 위한 내부 세일즈 프로세스와 내부 조직간 조화로운 근무 환경을 위한 개선점들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아울러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그룹간 브레인 스토밍 시간을 통해 앞으로의 회계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 성진애드컴, POD 라미네이터 PROTOPIC PLUS-520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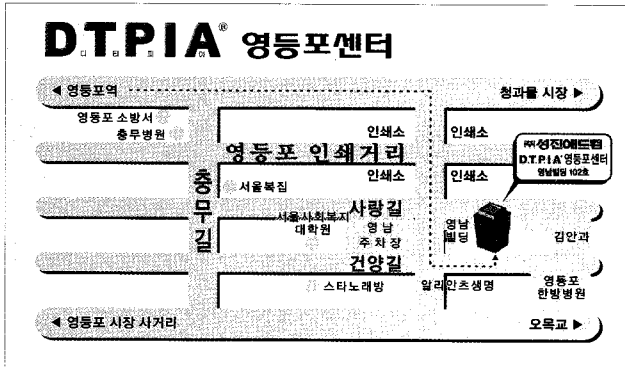
(주)성진애드컴(대표이사 이정희)은 최근 GMP의 디지털 프린트 POD 라미네이터 PROTOPIC PLUS-520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PROTOPIC PLUS-

520은 디지털 인쇄실에 설치, 디지털 인쇄기로 출력되는 인쇄물을 즉시 후가공할 수 있다.

성진애드컴 측은 "이번 디지털 POD용 라미네이터 도입으로 인해 최근 도입한 HP Indigo 7000 디지털프레스, 코니카 미놀타 LD-6500에서 생산되는 수입지 명함과 소량 전단, 카탈로그 등의 고품질 디지털 인쇄물을 빠른 후가공을 통해 더욱 신속하게 납품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난 3월부터 신설된 POD 인쇄물 품목이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진애드컴에서 이번에 도입한 GMP의 디지털 프린트 POD 라미네이터 PROTOPIC PLUS-520은 분당 15m의 속도로 최대 520mm×800mm까지 작업이 가능하다. 또한 On-Demand 제책용 라미네이터로 종이 놓는 시점을 알려주는 표시등 장착으로 급지 편의성이 향상되었으며, 높이 조절로 다양한 종류의 종이를 사용할 수 있는 라미네이팅과 함께 최고의 엠보싱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이다.

### 성진에드컴, DTPIA 영등포센터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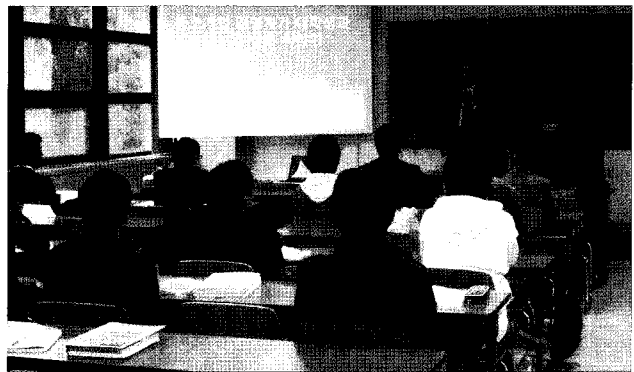
(주)성진에드컴(대표이사 이정희)은 지난 4월 1일 서울 영등포 인쇄거리 내에 위치한 영남빌딩 102호에 'DTPIA 영등포센터(센터장 양현국)를 개설하고 방문접수 및 출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영등포센터 개설에 대해 성진에드컴 관계자는 "이전에는 영등포 지역을 포함한 서울 서남부 지역과 부천, 광명, 안양 등에 있는 고객들이 충무로 출고실까지 방문 출고하는데 번거로웠으며 야간 출고가 어려워 적잖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영등포센터 개설로 인해 주문 시 출고지를 영등포센터로 선택하면 영등포센터에서 바로 출고가 가능해 기존에 어려웠던 야간 출고가 가능해져 납기를 하루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서남부권 고객들의 경쟁력이 향상되었다"고 말했다. 영등포센터는 하루 3번 출고를 하게 되며 앞으로는 원고 작업서비스를 병행, 영등포 인근 지역 인쇄사들과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갈 예정이다.

문의: 영등포센터 (02)2068-6166~7

주도적인 리더십을 기르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회사측의 관계자는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성도GL/솔루윈의 의지가 담긴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토론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고객의 만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성도GL 김상래 대표, 서울대학교서 경영학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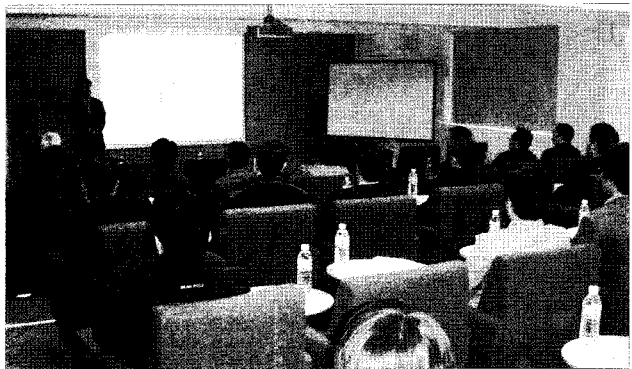
(주)성도GL/(주)솔루윈은 김상래 대표이사가 지난 4월 2일 서울대학교 '경영학개론'의 특별강사로 초빙되어 '중소기업 경영자가 대학생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날 강연은 중소기업의 문화경영과 관련한 성도GL의 비전과 업적을 얘기하며 대학생들에게 기업과 조직, 사회공헌 등 경영학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시간이 되었으며 인쇄산업이 사회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 성도GL/솔루윈, 전 임직원 질문 리더십 교육



(주)성도GL/(주)솔루윈(대표이사 김상래)은 4월 7일과 21일에 '창의 리더십 발전 교육·질문 리더십'라는 제목으로 전 임직원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1회당 약 3시간의 집중강의로 진행되었으며 고객 중심의 창의적 발상과

### 성도GL/솔루윈, XMF 특별 세미나 개최



(주)성도GL/(주)솔루윈(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 3월 27일 차세대 신개념 워크플로인 후지필름 XMF의 고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후지필름 XMF 특별 세미나는 XMF에 대한 시연과 제품의 특성, 현장에서 사용했을 때

편리성과 발 빠른 정보와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자 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성도GL/솔루션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미나 자리를 마련, 고객의 편의와 만족을 드릴 수 있는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한국후지제록스, 700DCP 출시 충청지역 로드쇼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지난 4월 15일 대전 서구 탄방동에 위치한 오페라웨딩홀에서 충청 지역 고객들을 위한 컬러 디지털 인쇄 시스템 700 디지털 컬러프레스(이하 700 DCP) 출시행사를 가졌다. 충청 지역 주요 고객과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700DCP에 대한 소개에 이어 시연 행사가 진행됐다. 후지제록스는 700DCP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품구조, 인쇄 프로세스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준비된 출력물 샘플을 참석자들에게 나눠주며 오프셋 수준에 버금가는 인쇄품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700DCP의 개발명과 같은 이름인 'Pinot' 품종의 와인을 함께하며 자연스러운 대화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 날 행사에서 PS영업사업부 김홍석 부장은 “최근 경기 불황의 여파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인쇄업계에 가격대비 우수한 생산성을 자랑하는 제품을 소개하게 되어 기쁘다”며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단순히 제품 판매보다는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를 열어줄 디지털인쇄가 가진 많은 강점과 효과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후지제록스 700DCP는 월 인쇄량이 1만5000매에서 5만 매에 달하는 중소 규모의 인쇄업체에서 본격적인 디지털 컬러 인쇄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데 가장 적합한 기종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2400dpi의 해상도에 A4 사이즈 단면 풀 컬러 인쇄 기준으로 분당 70매의 속도로 인쇄가 가능하다.

## 한국엡손, 비즈니스용 A3 레이저프린터 Epson AcuLaser M8000N 출시

한국엡손(대표 쿠로다 타카시)

은 경제성을 높인 비즈니스용 고속 A3 모노 레이저프린터인 AcuLaser M 8000 N을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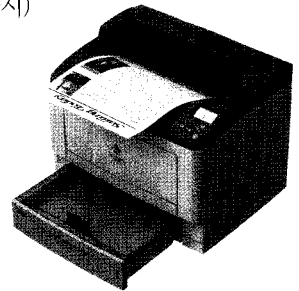
했다. 'AcuLaser M8000N'

은 44ppm의 초고속 출력 속도로 100장의 문서를 2분 내

에 출력할 수 있고 첫 페이지 인쇄 시

간도 7.8초로 크게 줄여 비즈니스 환경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제품이다.

또한 1200dpi의 해상도로 다양한 종류의 문서를 선명하게 출력할 수 있고 어둡거나 매끄럽지 않은 컬러의 이미지를 선명하고 부드럽게 교정해주는 'Enhance& Micro Gray' 기능으로 2400dpi 수준의 이미지까지 제공한다. 한국엡손은 기본 128MB, 최대 578MB까지 확장이 가능해 많은 양의 데이터도 막힘없이 신속하게 처리되며 기본 650매, 최대 2,150매의 용지보관이 가능해 용지를 자주 공급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다고 밝혔다.



## 한진피앤씨, 보호시트 국산화 추진

한진피앤씨(대표 이수영)가 반도체와 LCD TV 제조에 필요한 보호시트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일본 업체가 100% 점유하고 있던 관련 시장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피앤씨가 신규로 뛰어들어 보호시트 사업은 일본 미쯔비사가 독점해 왔다.

한진피앤씨는 반도체와 LCD-TV 생산 과정에서 드릴쉽 단계에 필요한 완충 유향 부품인 '엔트리시트(ENTRY SHEET)'의 테스트를 마무리 하고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심텍, 대덕전자 등 인쇄회로기판 업체들을 통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으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근 이들 업체들 가운데 한진피앤씨의 보호시트를 채택한 몇 곳이 LG전자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엔화 가치가 지난 2007년과 비교해 두배나 올라간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본격적으로 채택할 경우 회사 매출 확대는 물론 국내 반도체 LCD 업계에서도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진피앤씨는 엔트리시트 매출로만 연간 150억원 이상의 매출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스냅스 시즌 II 사이트 리뉴얼 오픈 이벤트

한국HP(대표 최준근)는 온라인 사진 인화 사이트 스냅스(대표 김성경)가 인디고 프레스5500을 추가 도입하고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로 사이트를 리뉴얼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스냅스 시즌 II'



서비스는 업그레이드된 편집 기술과 6색 잉크를 장착한 'HP 인디고 프레스 5500'를 추가 도입해 완성도 높은 '개인 맞춤 상품'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스냅스 웹사이트 리뉴얼의 핵심인 '갤러리 복사' 기능은 고객이 기존에 만든 작품이나 편집이 잘 된 작품,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상품 등을 장바구니에 복사하고 사진을 바꾸어도 주문이 가능하도록 오픈 서비스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기존 메뉴를 테마 별로 보강, 결혼, 교육 등의 주제별 작품을 신설해 다양해진 대형 출력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냅스 홈페이지\_www.snaps.co.kr

## 한국 HP, 몬스터 vs 에이리언 프로모션 실시

한국HP(대표 최준근)는 드림웍스사의 애니메이션 '몬스터 vs 에이리언(Monster vs Aliens)' 개봉을 기념, 샌프란시스코 여행권 및 HP미니노트북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오는 5월 30일까지 진행되는 '한국HP와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몬스터 vs 에이리언이 함께하는 몬스터급 이벤트가 온다!' 이벤트는 행사기간 내 HP 무선 복합기 제품을 구입하고 HP 이벤트 홈페이지(www.hp.co.kr/mva)에 제품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결정되며 1등은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여행권 (1명, 동반 1인 포함), 2등은 HP미니노트북(3명), 3등은 10만원 상당의 가족 외식 상품권(10명)을 증정한다. 한국HP 이미징 프린팅 그룹 김상현 전무는 "HP와 드림웍스의 기술 제휴의 우수성은 드림웍스사의 인기 애니메이션 쿠푸팬더 및 슈렉 시리즈로도 검증된 바 있으며 이번 프로모션은 HP의 뛰어난 디스플레이 및 그래픽 프린팅 기술과 드림웍스의 애니메이션이 결합한 의미 있는 공동 브랜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 GMP, 써멀라미 필름 FDA인증 획득

지엠피(대표 김양평)의 써멀라미 필름이 미국 식품의약품 안전청(FDA) 인증을 획득했다. 지엠피는 지난 4월 10일 써멀라미 필름 9종에 대해 미국 FDA로부터 식품포장 안전기준 통과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써멀라미 필름의 적용분야가 기존의 문서 및 사 진보관, 교과서 등 표지 코팅에 추가해 식품, 의약품, 화장품 포장 박스, 어린이용 책표지의 문구류 코팅, 유아용 장난감 포장 등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해, 이에 따른 수출시장 확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엠피는 최근 미국 제너럴 블라인딩과 7억5000만원 규모의 라미네이터 및 라미네이팅 필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 이상권 사장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상공업계의 발전을 격려하고 상공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제36회 상공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월 18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 (주)상진문화 이상권 대표이사가 모범상공인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상권 사장은 인쇄문화 산업의 발전, 기술인력 양성과 노사화합 및 근로자 복지증진, 인쇄수출시장 판로개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했다.

## 안영주 사장 대통령표창 수상

지난 3월 2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09 직능 인경제대회' 시상식에서 진흥기획 안영주 대표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안영주 사장의 이번 수상은 직능인경제인단체총연합회 산하 (사)국제문화친선협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문화를 통한 국위선양과 직능인의 위상을 고양시킨 점이 높게 평가됐다.

:: 제지뉴스

Paper news

## 이엔페이퍼, 아트원페이퍼로 새출발

한솔제지가 인수한 인쇄용지업체 이엔페이퍼(대표 서재우)가 아트원페이퍼(Artone Paper, Inc.)로 사명을 바꾸고 새출발한다. 이엔페이퍼는 최근 사내 공모 등을 통해 아트지(인쇄용지)의 으뜸(Art, One)이 된다는 의미의 아트원페이퍼로 회

사명을 변경했다. 이로써 1970년대 삼성특수지와 온양팔프로 출발해 82년 신호제지, 2006년 이엔페이퍼로 상호를 변경한 회사는 사라지고 인쇄용지부문의 아트원페이퍼와 산업용지부문의 케이지피로 분할됐다.

### 한국제지 정기 주주총회 개최



한국제지(대표 전원중)는 지난 3월 2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53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승인된 재무제표에 의하면 한국제지의 2008년도 매출액은 전년대비 28.4% 증가한 5699억 원이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273억 원, 37억 원을 기록했다. 주식배당은 액면가 기준으로 6%(현금 300원/주)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김광권 사내이사와 이원욱 사외이사가 신규로 선임되었으며 박영준 사외이사는 연임됐다.

### 한국제지 하회마을 공동 주말농장 재배

한국제지(대표 전원중) 온산공장은 지난 3월 21일 1사 1촌 결연마을인 하회마을 동네 주민들과 함께 봄을 맞아 공동 주말농장에 감자 씨앗을 심었다. 지난 2006년 자매결연 이후 2007년부터 공동 주말농장을 조성하여 감자와 배추 등을 재배해 왔으며 수확물들은 온산지역 내 경로당이나 요양원 등에 기증해 오고 있다.



### 범우출판포럼 제7회 학술세미나

범우출판포럼(회장 부길만·동원대학 광고편집과 교수)은 지난 4월 9일 오후 18시부터 20시까지 출판문화회관 강당에



서 '한국출판문화사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2)'란 대주제로 제7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재운 국회의원과 범우출판재단 설립자인 범우사 윤행두 회장 등 내빈 및 출판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남석순 김포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부길만 동원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으며 이견용 차이나하우스 대표, 유승달 좋은기획 이사, 홍순운 한국출판학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이어 열린 총회에서는 부길만 현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연임됐다.

###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에 윤행두씨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이사장 윤행두)은 지난 3월 18일 서울 종로구 시간동 재단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제11대 이사장에 윤행두 범우사 대표(74세)를 연임, 선출했다고 밝혔다.



윤행두 대표는 1966년 범우사를 설립한 이후, 한국출판학회 회장,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문화부장관상과 법무부장관상, 대통령표창과 서울시문화상, 국민훈장 석류장, 보관문화훈장을 수상했다. 또한 윤 이사장은 국립순천대학교에서 명예출판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중앙대 신방대학원 객원교수로 있으면서 많은 출판인재를 양성해 왔다. 신임 이사로는 윤 대표 외에 김경희(지식산업사 대표), 임홍조(영재교육사 대표), 김종수(한울 대표), 윤청광(동국출판사 대표), 최선호(세계사 대표), 윤재승(민족사 대표) 등 7인이 선출됐다.



출판협회 · 출판연구소, 출판포럼 개최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백석기)와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임홍조)가 주최한 '공정위의 대형서점 반품 금지 고시, 문제는 없는가'에 대한 포럼이 지난 4월 3일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윤세민 한국출판학회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중인 '대규모 소매업 고시'(대규모 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통해,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또는 매장 면적 3000m<sup>2</sup>(약 900평) 이상인 소매 서점의 경우 부당 반품을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정위 고시에 관한 대형 서점 및 출판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공정위 고시 개정 여부에 대한 입장 정리와 함께 바람직한 출판유통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해외뉴스 World news

하이델베르크, HEI ECO 프린팅 어워드 개최



하이델베르크는 환경 보호, 경제적 이점 및 사회적 책임감에 중점을 둔 솔루션에 수여되는 HEI프린팅어워드를 개최했다. 처음으로 열린 이번 어워드에서는 햄릿인쇄사(캐나다)와

요시다 인쇄사(일본)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인쇄 회사가 펼치고 있는 환경 보호에 대한 노력과 솔루션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이번 어워드는 아프리카, 유럽, 미주,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의 52개사가 응모했으며, 심사위원단은 이 후보들 중 2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수상자 선정과 관련해 하이델베르크 마케팅 부분 경영 이사회 임원인 유르겐 라우터트 박사는 "참여한 숫자가 인상적이며 무엇보다 HEI ECO 프린팅 어워드의 후보들의 높은 품질이 놀랍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이델베르크는 세계 판매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적 솔루션을 찾아내고 이 노하우를 시장에 전하고자 이 어워드를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하이델베르크의 환경 보호를 책임지는 기술 부문 이사회 임원인 스테판 플란즈는 "오직 총체적 접근법이 회사의 환경 성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하이델베르크는 인쇄 공정의 환경 보호 개념에 초점을 둘 뿐 아니라 기계의 개발과 생산에서도 그러한 요소를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의 햄릿 인쇄사 크웬호벤 사장은 최고의 지속가능한 인쇄사를 위한 환경 어워드와 함께 3만 유로의 상금을 받았으며, 일본의 요시다 인쇄사 카주히사 요시다 사장은 상금 2만 유로와 함께 최고의 혁신적 독립형 솔루션 상을 수상했다. 올해 1회 행사를 치른 HEI ECO 프린팅 어워드는 2년마다 개최될 예정이다.

프리넥 컬러 툴박스, 손지와 작업준비시간 절감

하이델베르크는 새로운 칼리브레이션 방법을 도입해 그레이 밸류의 최적화를 구현, 손지절감과 작업 시간 절감을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쇄에서 중요한 품질 기준이 되는 올바른 재현이지만 지금까지 인쇄인들은 시각에 의존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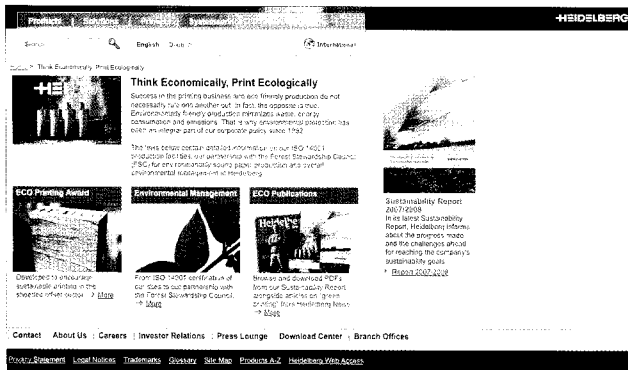


점검으로 기계의 세팅 동안 솔리드 계조의 잉크층 두께를 바꾸어 올바른 그레이 밸런스를 재현해 왔다. 그러나 이는 다루기 어려운 전체 톤 값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경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수정할 경우 손지가 늘어나고 작업준비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하이델베르크사의 프리넥 컬러 툴박스에 소개된 새로운 그레이 밸런스 최적화 기능은 프리넥 인쇄사 워크플로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솔루션이며 더 정확한 프로세스 칼리브레이션을 통해 판 제작 시 정확한 그레이 밸런스를 확보할 수 있다. 이 방법으로 기장은 인쇄판의 리니어라이제이션이 끝난 후 테스트 폼을 인쇄하고 이를 칼리브레이트하여 필요한 측정 데이터를 만든다. 이런 색 측계식 측정과 참고 인쇄 조건에서 나온 데이터로 정확한 프로세스 칼리브레이션이 가능하며 인쇄기와 프리넥이 통합된 결과, 손지는 줄어들고 작업준비시간을 줄여줄게 된다.

하이델베르크 사의 프리넥 제품 관리 책임자인 크리스토퍼 베르티는 "이 툴을 사용하는 첫 고객에게서 매우 긍정적 반응을 받았으며 사용자들은 구동 방법이 매우 단순하다는 것에 만족했다"며 "컬러 매니지먼트에서 고객이 자신의 직감에 의존하는 것이 줄어들수록 최상의 인쇄 결과를 더욱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 하이델베르크, 환경 웹사이트 개설



한국하이델베르크(주)대표이사 김범식은 하이델베르크 본사의 지속가능성 리포트를 비롯한 다양한 친환경 활동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새로운 친환경 HEI ECO 콘텐츠를 개설했다. 인쇄 산업에서 그 역할이 커져가고 있는 생태학적 문제에 대응, 하이델베르크는 수년간 원자재의 소비를 제한하고 배출을 줄이며 폐기물을 감소시키는 인쇄기를 개발, 생산 및 활용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작업해 왔다. 지난 1992년에 하이델베르크가 환경 보호를 중요 사업 목표로 삼은 이후,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성공이 결코 배타적이지 않음을 다시 증명했으며, 하이델베르크는 자체 웹사이트에 전용 장소를 만들어 생태학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HEI ECO 홈페이지: [www.kr.heidelberg.com/eco](http://www.kr.heidelberg.com/eco)

## 만로랜드, CHINAPRINT 2009 참가

만로랜드는 오는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중국 북경



에서 개최되는 CHINAPRINT 2009에 참가한다고 발표했다. Eihl에 전시회를 준비하는 만로랜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고객들에게 만로랜드의 고성능 기술을 소개하는 기회를 갖는 한편, 협력사들과의 더욱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시회 기간 동안 만로랜드 본사의 매업 인쇄기 사업부의 총 책임자인 Markus Rall 박사의 특별 환영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기계 가동 시현 설명회를 개최, 부스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만로랜드의 장비를 소개하고 생산 기술을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이번 전시회를 총괄하는 만로랜드차이나는 방문객들에게 중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만큼이나 불거리가 있는 CHINAPRINT 2009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 세계최대 출판강국 추진

중국은 향후 3~5년 안에 6~7개의 초대형 출판 미디어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무대를 향한 해외진출에도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총서는 최근 '신문출판 체제 개혁에 관한 지도의견'이라는 문건을 통해 신문 출판 미디어 산업에 대한 체제개혁과 함께 통폐합 대형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출판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가 신문출판 총서는 이번 '지도의견'에서 전략적 투자자간 통합 및 합종연횡을 통해 향후 5년안에 자산과 매출 규모가 각각 100억 위안(2조원)을 넘는 국제 지명도를 가진 초특급 출판 미디어 기업 6~7개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외향형 출판 미디어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중국내에 영향력있는 국제 출판 판권교역 플랫폼을 개설할 방침이다. 특히 출판미디어 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조건의 갖춘 출판 미디어 기업들에 대해 용자와 합작 등을 길을 터줘 이들 기업이 해외로 진출해 신문과 각종 간행물, 출판 및 인쇄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